

남녀공학고 내신등급산정 성차별 파문

“산 넘어 산” 내신산출 성차별 항의

남녀공학, 남녀 통합내신 산정이 바람직

고입 남녀 합격선 불평등 문제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남녀공학고등학교에서 여학생·남학생을 따로 구분해 내신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놓고 여학생 학부모들이 ‘성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정고등학교(교장 권재중) 여자 이과반 학부모들은 남녀공학 고교에서 계열별로 더하여 여자와 남자를 따로 나누어 내신 책정을 할 경우 숫자가 적은 이과반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도 같은 남학생에 비해 월등히 낮은 내신등급을 받아 불이익을 당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남녀통합내신 결정반복에 학부모 발끈

또 내신 남녀 분리산정이 남녀공학제도하에서는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통합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내신성적산출요강의 왜곡된 해석과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무사안일의 교육행정 및 수행자들의 책임감 부재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여학생이 부당한 피해를 입어 왔다고 항의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 입시부터 대부분 대학이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시험성적과 종합생활기록부, 논술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어 이대로 방치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산출의 결정권을 가진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로 결정을 떠넘기고 이과 남학생 학부모들은 여학생 학부모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교육개혁으로 등급내신제에서 종합생활기록부제로 바뀌면서 권교장이 남녀분리 내신제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남녀통합내신제를 채택한다고 육성 대의원 회의에서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달 10일 열린 학부모 대의원 총회에서 권교장은 “남녀 분리내신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남녀통합내신제를 실시하겠다. 옷을 벗어도 좋으니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12, 13, 14일 일부 남자 이과 학부모가 물려와 반대하자 학교측은 15일 교사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교직원 전체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내신 통합제 찬성 54, 반대 23, 기권 1로 나왔다. 이날 오후 남자 학부모들이 물려와 지난 2년간 남녀를 분리해서 내신 성적을 산정했는데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냐. 현행대로 남녀구별해야 한다’며 농성을 벌였고 학교측은 교사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월 16일 담임을 통해 학부모에게 4월까지 결정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권교장은 이에 대해 “남녀공학에서 안고 있는 문제인데

다. 또 학교측은 ‘업무마비다’, ‘골치아프다’, ‘할말없다’, ‘쓸데 없는 일’, ‘별일도 아닌것을 일을 확대시키느냐’는 불쾌한 반응을 보여 여학생 학부모의 원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17일 오전 여학생 학부모는 교육부를 방문했는데 담당 장학관은 지난해까지 구정고

학부모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많은 학생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학교정책사항을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특히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묵살된데 심한 분노를 느낀다. 일부 남학생 학부모와 교사가 남녀통합산정은 남학생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분리산정의

보였다. 여협은 구정고에 통합산정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과 여학생반은 수업에 차질을 빚었으며 일부 여학생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먹은 것을 토하거나 심한 불안증상에 시달리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교사는 이과 남학생반에 들어가 ‘용기를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잘될 것이다’라고 격려하는 등 편파성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된 일부 교사는 허탈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있다’ 일반적 견해

학부모 김모 씨는 “지난 1년동안 불이익을 감수한 것은 이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본고사에서 만회한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본고사가 폐지되고 내신등급의 반영비율이 높아진 지금 적은 인원에서 백분율로 성적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고 게다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하는 학생들이 있어 현재의 인원수도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단체 자퇴나 단체 전과 등의 극단적인 대책이 오고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개편이 있으니 믿고 기다리라는 학교측의 방침에 문과로의 전과나 학교 자퇴가 가능한 날짜를 넘겨 버려진 퇴양난에 부딪쳐 있다. 특히 문과로의 전과문제는 확정된 방안이 없어 선불리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서울대학교 김신일 교수(교육학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면

서 남녀구별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엄연한 성차별로 볼 수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남녀가 평등하다는 기본원칙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 박사는 “같은 학교에서 남녀구별하는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여학생 학부모측은 청와대, 정부2장관, 여성유권자연맹, 여성단체협의회 앞으로 여학생들의 성차별로 기인된 교내 학사행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내 본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공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남녀평등원리에 입각한 기회의 균등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이번 기회에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구시대적인 내신성적 산출로 인해 일부 여학생이 받게 되는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관행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공학에 배정된 것을 고려할 때 남녀 내신통합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정고는 한 학년이 남자 10반(이과 6반), 여자 5반(이과 1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여자 이과반은 인원수가 40여명 안팎으로 이 인원을 15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3년전에도 이같은 문제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구정고는 올해 신입생부터 남녀통합내신제에 대한 사전예고를 할 방침이고 2학년 학생들에게 가정통신을 보내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미희 기자)



고입 남녀 합격선 불평등 문제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남녀공학고등학교에서 여학생·남학생을 따로 구분해 내신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놓고 여학생 학부모들이 ‘성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나치게 확대되어 유감스럽다. 남녀통합하는데 이견은 없으나 사전예고 안 한 것이 불찰이다. 성차별 운운하는

교감으로 재직하며 남녀 이과반 통합산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장본인으로 ‘어머니들이 왜 난리냐. 내가 재직하고

로 부당한 이익을 보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일부 일선교사에 의해 성차별이 묵인되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여성단체협의회 김금래 사무총장은 “내신산정은 학교장의 결정사항이지만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성차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상황이므로 통합산정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남학생·여학생 학부모 이해관계 대립 남녀 분리 내신산출, 이과 여학생에 불리 여협, 학교측에 ‘남녀 통합산정 권유’ 공문 보내

것은 옳지않고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겠다. 학부모에게 전달한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통보였고 교직원 투표 결과는 결정하는데 참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여자들 시집만 잘 가면 됐지, 남자 앞길 왜 막느냐’ 일선교사 발언

번복결정을 전해 들은 여학생 학부모는 16일 오후 3시경 교장면담을 요청했고 잠시 후 남학생 학부모가 가세, 17일 새벽 1시경에 해산했다. 여학생 학부모측은 ‘교직원회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요구했고 교장은 ‘부임초기 이과반에 문제가 있어 고쳐보려 했으나 여러 문제가 파생돼 운영위원회로 의결권을 넘기겠다’고 답변했

있을당시에도 이같은 문제가 호지부지되고 말더라’는 말을 전해들었다. 또 그는 재직시 ‘여자들이 시집만 잘 가면 됐지 남자들 앞길을 왜 막느냐. 그냥 놔두면 지쳐서 그만둘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번복결정에 소수 이과 남학생 학부모들의 입김과 압력이 작용했으리라는 것이 여학생 학부모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또 4월까지 결정을 미루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방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여학생 학부모측은 “남녀 내신의 결정권을 가진 교장이 남녀통합내신제를 결정한 것은 교육의 평등의 원칙에 타당했기 때문이다. 결정을 번복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교사의 의사를 무시한 채 결성되지도 않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결정권을 넘긴 것은 학교장의 직무유기이며 남학생